

현장시선



강보해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사무국장

최근 뉴질랜드의 25세 국회의원 클로에 스와브릭(Chloe Swarbrick)이 국회서 자신의 발언을 끊으려고 한 나이 든 국회의원에게 'OK, 부머'라 말한 것이 화제다. '부머'는 영미권 젊은 세대들의 은어로 '베이비부머(baby boomer)'를 줄여 말한 것으로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에서 시작된 용어다. 우리사회에 '핀대'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 발언은 미국, 영국 90년대대생들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스와브릭 의원은 일약 스타가 됐다. 트위터에

'대화합시다. 동등하게'

는 스와브릭 의원의 발언을 공유한 게시글이 수백 건 이상 게재됐으며, 그녀의 인스타그램에는 수많은 팬들이 방문해 "Ok, Millennial"이라며 응원 댓글을 남겼다. 물론 비판도 많았다. 이 말의 주인공인 '기성세대'는 정치인이 어떻게 저런 바이러스성 단어(viral phrase)를 사용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이라며 의원 자격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어쩌면 이러한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너무나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만났다면 갈등은 당연한 것이다. 다만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화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갈등은 누른다고 해결할 수 없다. 누르면 잠시 침묵할 수 있지만 그것은 결국 언젠가 빠져나와 더 큰 갈등이 될 것이고, 갈등이 쌓이다보면 그것은

갈등을 넘어 하나의 벽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공론의 장을 만들고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 공론을 두려워하지 말자. 기성세대가 지금 현재의 주인일지 몰라도 그들이 만든 사회를 살 수 밖에 없고, 그 사회 속에서 다시 미래를 그려야 할 것은 미래세대다. 함께 그 사회를 살아가는 동등한 구성원이며, 미래를 그릴 주인이다. 'OK, 부머'만 화제가 됐지만 스와브릭 의원이 하고 있던 연설도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다.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수십년 가까이 파괴된 자연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데, 아직도 침묵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었다. 자연의 경고를 침묵할 수 있는 사치가 다음 세대에게는 없다는 이야기였다. 변화하는 세상을 가장 빠르게 체감하는 것은 당연히 미래세대다. 세상의 변화를 가장 빠르게 즐기고, 그

속에서 어우러지는 것이 미래세대다. 이들의 감을 투정이라 부르지 말자. 이들이 가장 빠르게 시장을 뛰어다니고 있으며, 우리사회도 이들에 맞춰 상품들을 개발하고 있다. 소비를 주도하는 것은 미래세대고, 그 소비에 맞춰 시장도 변화한다. 이 상황만 봐도 미래세대의 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우리가 미래세대에게 몇몇할 수 있으려면 미래를 그리는 순간에 동등한 자격으로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 미래세대의 이야기가 그저 투정이라 생각한다면 그 순간 당신은 'OK, 부머'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함께 살고 있다. 이 지구에, 이 한국에, 이 제주에. 공론의 장을 열고 당당히, 동등하게 대화하자. 그것만이 우리가 미래를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수단이다.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지자. 그것이 책임이다.

사설

악취관리지역 지정해도 별 효과 없으니

제주 시내에서 외곽지로 나가다 제주 시내에서 외곽지로 나가다 보면 종종 악취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악취가 풍길 때마다 제주를 찾는 손님(관광객)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기 맑은 제주에 왔는데 악취가 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정제주가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악취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시 관내 양돈·축산악취 민원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양돈·축산악취 민원은 2014년만 해도 152건에 불과했습니다. 그해 2015년 246건, 2016년 455건, 2017년 491건에 이어 2018년에는 982건으로 갈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이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악취민원이 많은 한림과 애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양돈시설 노후화 등으로 악취 해결에는 역부족입니다. 특히 양돈악취는 비단 제주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1리 주민들도 얼마전 양돈악취 근절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마을 인근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을 견디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제주도가 지난해 3월부터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나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애김니다. 제주도의 악취저감대책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후 악취민원이 더 늘어난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세화1리 주민들도 제주도가 악취관리지역 지정기준을 완화해 양돈사업자에게 면적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는 악취에 대한 관리 기준을 더욱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행정이 지금까지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할 일 다했다고 한다면 악취문제는 결코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공무원 사회 갑질 행태

지난 7월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일명 갑질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공직사회는 무풍지대나 다름없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근로기준법에 해당돼 공무원들은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탓인지는 몰라도 제주도내 공직사회의 갑질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공직내부의 갑질 행태 근절을 위해 지난 9월 도청 소속 6급 이하 전직원 대상 실태 조사 및 갑질 결과 22건이 접수됐습니다. 도는 이중 7건을 갑질 행태로 판단했습니다. 폭언과 모욕적인 언행은 물론 본인 업무를 떠넘기거나 타인 앞에서 망신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막말 및 인격부상 시와 출장시 과도한 의전 강요, 사적인 용무 지시, 근무 중 고성 지르기 등 다양합니다. 일부 관리자부터 실무자 직급까지 갑질 행태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공부문, 특히 도내 공무원 사

회에서 갑질 행태가 여전히 많은 문제입니다. 이는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공무원 사회의 조직문화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통과 상호존중 보다는 위계와 상명하복만을 절대시하는 후진적 행태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행정의 변화와 혁신, 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괴롭힘을 당해 진정을 해도 단순 인사조치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데도 원인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방지 대책으로 올해말 까지 갑질 예방 내부규정 제정 등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합니다. 제식구 감싸기 식 습관방어 처벌이 계속되는 한 허투루에 그칠 우려가 큼니다. 강력한 처벌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뉴스-in

"의회는 민주적 운영과 관련 유감스런 일"

원 지사, 국비확보 선발 등판
○...원회룡 도지사자 14일 국회의 방문해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지방정부 수장들의 로비전에 가세. 원 지사의 국회방문은 2020년 정부예산안의 국회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가 끝나고 오는 28일까지 예정된 예산안조정 소위원회 개최 등을 감안해 선발 등판.
원 지사가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의 추가 예산 확보 등 성과를 거둔 전적(?)이 있어 도 예산부서를 중심으로 내심 또다른 걸음을 기대하는 눈치. 조상윤기자
'직권상정 제한' 후폭풍 주목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의정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한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후폭풍을 일으키자 주목.
김 위원장은 14일 열린 기자간담에서 "직권상정이나 심사기간 조정을 당연한 권한 행사처럼 이

아기하는 것은 의회의 민주적 운영과 관련해 상당히 유감스런 일"이라고 비판.
이이 15일 '제2공항 도민공공화 특위 결의안'의 의정 직권 본회의 상정 가능성과 관련 "의회운영위 원장직을 계속 유지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언급. 오은지기자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
○...서귀포시가 일상에서 도로명주소를 쉽게 활용하며 가까워질 수 있도록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홍보교실을 운영중. 교육은 애니메이션 관람에서부터 퀴즈풀이, 체험형 도로명주소 길찾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로명주소의 중요성과 올바른 사용법 알리기에 주력.
시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시작한 초등학교 대상 홍보는 관내 40여개교에서 계속 운영해 편리하게 도로명주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 문미숙기자

열린마당

다같이 누리는 제주 관광



최미숙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융합과

길이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다른 관광지는 어떻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경사도가 높거나 계단이 있는 길은 큰 장애물로 이동약자가 선택할 수 있는 관광지는 극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대부분의 관광지 무장애 여행 정보는 장애인용 주차장·화장실 유무 정도에 그치고 있다. 도에서는 이를 위해 무장애 여행 데이터 발굴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2018년에 주민들이 무장애 여행 데이터 발굴을 제안했고,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 추진했다. 그 결과 무장애 여행 데이터를 활용해 '모두를 위한 여행' 지도 제작을 제작했다. 책자에는 도내 관광지 50개소에 대해 휠체어 이동가능 및 추진경로, 장애인용 화장실 등 편의 시설의 상세 정보를 수록했다. 책자는 스스로해결단과 두리함께 임직원들이 데이터 조사부터 제작까지 애정을 담아 만들었다. 이 책자가 이동약자와 함께 여행을 계획하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관광지 시설 관리자들에게 무장애 여행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길이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다른 관광지는 어떻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경사도가 높거나 계단이 있는 길은 큰 장애물로 이동약자가 선택할 수 있는 관광지는 극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대부분의 관광지 무장애 여행 정보는 장애인용 주차장·화장실 유무 정도에 그치고 있다. 도에서는 이를 위해 무장애 여행 데이터 발굴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2018년에 주민들이 무장애 여행 데이터 발굴을 제안했고,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 추진했다. 그 결과 무장애 여행 데이터를 활용해 '모두를 위한 여행' 지도 제작을 제작했다. 책자에는 도내 관광지 50개소에 대해 휠체어 이동가능 및 추진경로, 장애인용 화장실 등 편의 시설의 상세 정보를 수록했다. 책자는 스스로해결단과 두리함께 임직원들이 데이터 조사부터 제작까지 애정을 담아 만들었다. 이 책자가 이동약자와 함께 여행을 계획하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관광지 시설 관리자들에게 무장애 여행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고
현충훈(주)인젠트 임원·현동훈((주)우리비케이에너지 대표이사) 아버지 연주현공 치방(前 서귀포시장·향년 90세)께서 서기 2019년 11월 13일 18시 23분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11월 16일(토)
발인일시: 2019년 11월 17일(일) 오전 8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3분향실(3층)
장 자: 양지공원
부인: 진신아, 아들: 현충훈, 딸: 현의경, 손자: 현상우, 손녀: 현아진

부고
이화계(동천식당) 어머니 광산 김씨 순례(향년 89세)께서 서기 2019년 11월 14일 12시 58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11월 16일(토)
발인일시: 2019년 11월 17일(일) 오전 6시 3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분향실
장 자: 조천 가족 공동묘지
남편: 이근옥, 아들: 이화계, 딸: 이덕심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제주양공 지의(향년 90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었고 고마운 말씀을 울림이 도리어나 우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부인: 양애정, 아들: 양은철, 딸: 양애정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곡식품의약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홈페이지: http://www.baekdorajji.com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전기차 사고 팝니다.
eworld.kr
(주)전기자동차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주간농업농촌소식
고품질 노지감귤 선별 수확 및 출하로 제값 받게 참여합니다.
수확기 판단 기준, 수확기 위치, 수확 시기 주의사항 등 상세한 안내를 제공합니다.